

7 갈뱅의 신학에 있어서 NGO의 가능성에 관하여

배경식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서 언

갈뱅(J. Calvin)과 웨슬리(J. Wesley)의 본질적 일치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한철하 박사의 저서 「21세기의 인류의 살 길」에서 잘 언급되어 있다. 와인쿱은 정통신학에 끼친 웨슬레안의 영향에 대해서 신갈뱅주의 혹은 온건, 수정 갈뱅주의, 웨슬레안 갈뱅주의, 그리고 갈뱅주의적 웨슬레주의라고까지 말하면서 갈뱅과 웨슬리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¹⁾ 그동안 연구업적으로 샤프(P. Schaff)나 딜렌베거(J. Dilenbeger)를 들면서 그는 영국교회와 감리교 신조가 모두 갈뱅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였다.

우리가 웨슬리의 사역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의 사역은 올더스게이트 신도회(Aldersgate St. Society)에서 회심의

1. 밀드레드 와인쿱, 한영태 역,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71쪽 이하. 수정 칼빈주의는 5대 교리 가운데 단지 두 개의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성도의 견인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은 상반된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경험을 한 이후²⁾ 모라비안(Moravian) 중심적인 '산 신앙'(living faith)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³⁾

칼뱅 역시 1529년 오를레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초기에 볼마르와의 접촉 이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루터가 말한, "마치 마부에게 끌려가는 눈먼 말"의 비유와 같았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회심이라고 한다.⁴⁾

또한 웨슬리의 사역은 국왕으로부터 귀족, 정치가, 종교가, 학자,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18세기 영국사회에서 엄격한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키며 옥외집회와 소그룹운동, 평신도 전도자 양성과 파송을 했다는 것과,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전도를 했다는⁵⁾ 점 등이 NGO의 성격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한철하 박사가 30년만에 감격스럽게 두 번째의 책을 내면서 진리 이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까지 고백하며 칼뱅과 웨슬리를 신앙과 신학적으로 연결성을 찾는 것은⁶⁾ 이들의 가르침인 '신앙진리' 안에서 '21세기의 인류의

2. 웨슬리 형제의 회심 경험은 동생 찰스가 1738년 5월 21일이고 형 존은 24일이라고 한다. 존의 일기에 의하면 "나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 아니 나 자신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가득함을 느꼈다."

1739년 브리스톨에 감리교 '회단'(Society)을 창설하고 조직한 것은 '단'(bands)과 신도들을 12명으로 묶는 '속'(Class)이다. 이 단과 속을 통해 신도들의 신앙을 상호간에 증진하였으며, 소액의 헌금을 모아 교회 건축에 사용하였다. 참조: 윌리엄 워커, 민경배 외 3인 공역, 『세계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380쪽.

3. 한철하, 『21세기의 살길』(서울: 아세아연합대학교출판부, 2003), 139쪽.

4. 장 카디에, 칼빈, 이오갑 역,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47쪽.

5. 배경식, 『경건과 신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253쪽 이하. 웨슬리의 메소디스트운동은 당시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 편만해 있던 개인과 교회, 사회를 정화 시키고자 일어난 운동이었다.

6. 웨슬리 신학의 특색은 1) 복음주의적, 2) 성경에 기초를 둔, 3) 기독교 전승적, 4) 이성존중, 5) 경험주의적, 6) 실제적 평민적, 7) 중도적, 8) 에큐메니칼적이다. 참조: 송흥국, 『웨슬레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18쪽 이하.

살 길'을 제시하고자 함으로 이해된다.

인류의 살 길을 한 박사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길밖에 없다."라고 한다. 죄인 된 인간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개인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도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커질수록 더 커지며, 세계는 평화의 세계라기보다는 전쟁을 치루는 세계가 되어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참행복이 물질적 만족과 가치의 향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줌과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변화를 받아 악인이 선인으로 변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만 가능한 '단 한 가지 필요한 일'(one thing needful)임을 보여 주고 있다.⁷⁾

NGO란?⁸⁾

NGO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비정부조직'으로서 1945년 6월에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결성되었으며, UN 헌장 제71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1994년 UN이 밝힌 NGO의 개념정립을 보면 첫째, 참여와 자치 권력(empowerment)을 중시하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조직들, 둘째로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대표들을 말하는데, 지방과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조직된 자발적인 시민들의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사람들의 고통 감면과 빈곤층의 이해 증진, 환경보존과 기초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발 등의 활동을 추구하는 사적 단체들이다.

NGO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서 NPO를 사용하는데, 비영리조직(Non-

7. 상게서.

8. 주영수, 『NGO와 시민사회: 이론, 모델, 정책』(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59쪽 이하.

Propfit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서, 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는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학이나 교회 등의 종교기관과 적십자사, YMCA 등의 시민 단체, 병원, 복지기관, 지역사회 협회 등 무수한 단체들이 있다. 영국에서는 NGO, NPO 등의 부정어법 용어를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VO를 사용함으로써 자원 조직 혹은 자원센터(voluntary organizations)를 사용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VO는 일반 자선기관(general charities)이라고만 알려져 있으나 단순하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같이 모인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사회적, 지역공동체적, 그리고 가정생활의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대학, 병원, 연구 및 문화 기관 등의 거대한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기관들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 사용되는 용어로는 CSO로서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다. 정부권력의 사 부문에 대해 중요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주며, 이 영역들에 기여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와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과 결사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CSO는 NGO보다 광의적인 개념이다.

NGO가 권익추창과 서비스전달 단체에 초점을 둔 다소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옥스팜(Oxfam)이나 그린피스(Greenpeace), 그리고 앰네스티(Amnesty) 등을 지칭한다고 볼 때 노동조합이나 교회, 문화 단체들을 NGO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NGO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CSO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NGO와 교회의 연관성

교회와 NGO를 직접 연결시키는 시도는 한국적인 신앙에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시도일 것이다. 필자 역시 내적으로까지 교회를 하나의 NGO 단체로 격하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하지 못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에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다양한 NGO 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NGO와 교회를 연결시키고 싶다는 점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 초기의 선교를 하나의 좋은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최근에 필자가 매우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 책은 닥터 셔우드 홀(Sherwood Hall)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다.⁹⁾ 이 책을 보면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은 이 민족이 겪는 고통을 위로하며 또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다.”¹⁰⁾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닥터 홀 가족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고 있다. 이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한국 초기 선교의 희생적인 캐나다 선교사들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사무엘 모페트, 그리고 닥터 윌리엄 제임즈 홀 등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자신들의 꿈을 오직 한국선교에 바쳤으며, 특히 제임즈 홀은 청일전쟁 이후 전국적으로 번진 역병을 치료하던 중 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 서울 한강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다. 필자가 광주 호남신학대학 앞동산의 22기의 묘가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서 그들의 약력을 읽어 보면 평균 50세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한국에 와서 생의 위협을 느끼는 선교를 했으며, 의식주가 매우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제임즈 홀은 평양을 복음화시키려는 큰 뜻을 가지고 1894년 의료선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평양에서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으며 의료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었다.

셔우드 홀이 태어났을 때 조선의 여인들은 10~15명씩 조를 지어 어느 때는 1,500명이 몰려들어 이색적인 미국 여자와 애기 구경을 왔다. 코가 너무 높고 귀가 크다고 평을 하면서 웃는다거나, 심지어 “파란 눈을 가진

9. 셔우드 홀, 김동열 역, 「조선회상」(서울: 좋은 씨앗, 2003). 이 책의 부제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곳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다 이 땅에 묻힌 닥터 셔우드 홀가의 조선사랑이야기”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구체적인 한국 초기 선교의 이야기로서 초판 5쇄가 발행될 정도의 권장할 만한 책이다.

10. 상계서, 6쪽.

개새끼 같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¹¹⁾

이들 홀 가족은 한국에서 이대 부속병원과 평양에 시료원을, 그리고 해주에는 한국 최초의 구세 요양원을 세워 의료진료를 했으며, 크리스마스실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급시켜 한국의 결핵 퇴치에 앞장을 섰다. 이러한 의료선교의 일들은 NGO 단체로서 199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Medicins Sans Frontieres)¹²⁾가 하는 일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NGO화에 관하여

2004년 4·15 총선과 22일 북한 통천역 폭파사고를 접하면서 남·북한의 급격한 변화는 NGO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국회를 주변으로 하는 정치 단체와 시민봉사 단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구도상 4·15 총선이 결과적으로 잘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 첫째가 방송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일방적 보도이었다. 안방까지 속속들이 파고드는 TV 언론매체에서 선거 후 자막을 통해 사과방송을 할 정도로 어느 한 당을 위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것과, 둘째는 그로 인해 생겨난 편파적 지역이기주의인데, 결과적으로 어느 당은 동쪽을 점령해 버리고 아예 서쪽으로는 진출을 못하는 결과를

11. 상계서, 144쪽 이하.

12.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1971년 설립된 NGO 국제 의료기구이다.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정치, 경제권력과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는 인도주의적인 단체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45개국에 2,000여 명으로 8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1990년 걸프 전쟁과 화학무기 살포, 1995년 르완다 양민대학살, 1996년 북한의 구호활동, 1996년 터키의 지진피해 의료활동 등에 참여를 하여 실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1년 유럽 인권상과 미국 자유의 메달, 1997년에는 서울평화상, 그리고 199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들 역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기독교적 성향을 갖는 비정부기구인 NGO 자원봉사 단체이다.

남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획기적인 일은 데모로 유명해진 어느 당이 작은 수의 지역의원을 배출하면서도 비례대표의석을 많이 확보하여 제3당으로 부상한 점이다. 이 당의 계획은 2012년경에는 집권여당으로 갈 것이라라는 청사진을 내어 놓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과 기존의 정치 일정에 식상한 사람들이 ‘확 바뀔’ 열풍에 편승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국회에 진출하는 그 첫 번째 여건인 인물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가는 정치 성숙도에 큰 파장을 던진 결과가 되기도 한다. 금번 선거는 선거인 수를 조정하는 지역 안배로부터 시작하여 OX선거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겨 놓고 있다.

필자는 유럽 사회에서 거거하는 동안 젊은이들이 선거를 치루는 것과 세계적인 재난에 기독교적으로 대처하는 유럽인들을 여러 번 관심 있게 경험한 적이 있다.

선거가 있기 전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자신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들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았다. 상대방에게 어느 당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은 이 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소신 있는 제안을 통해 간접 선거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다고 그들이 열성 정당원은 아니었다.

금년 선거 역시 정당원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주의가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 전반에 관한 정책의 변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있어서 과거를 중시하는 인물 중심이나 세물이를 해내는 당 중심이냐라는 구도를 넘어서서, 정책 중심으로 선거가 정착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본다.

북한의 통천역 폭파사고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문과 언론들이 왜 하필이면 김정일 주석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시점이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의구심을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가 그것과는 무관하다

는 대답을 하게 되었으나 영자신문에 의하면 “북한 폭파 사고는 무수한 원인들이 있다.”(Thousands Casualties on NK blast)라고 할 때 수많은 의혹의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성금을 거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의 봉사 단체인 월드비전과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하는 구호활동이 현지인 중국 산동을 중심으로 약 250억 규모의 긴급구호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갖는 문화의 비 개방성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긴급 의료와 치료 부분까지도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그저 아쉽기만 하였다.

여기에서 필자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문과 언론매체를 통해 “개인과 단체가 얼마 기부했으며 누가 얼마 냈다”라는 것이 지금도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대 국민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전 국민의 성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회의를 하고, NGO 봉사 단체들은 물품을 정리하고, 성금은 개인과 단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으로는 1980년대 성탄을 맞아 동구권이 물자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시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바이쾨커(Weisecker)의 1분 방송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돈을 걷어 소포를 보낸 기억을 하게 된다. 당시 우리가 보낸 것은 밀가루 600그램과 설탕 600그램, 건포도, 치약, 칫솔, 버터 등 생필품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낼 때 창구는 우편료를 받지 않고 그저 우체국 창구에 갖다 주면 그것으로 동구권의 어느 가정에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성탄이 지난 새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동구권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전달한 소포가 한 가정에 그대로 전달되어 기쁨으로 잘 활용했다는 편지였다. 소포를 보낸 우리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컸다. 우리가 보낸 구호품을 액수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만 원 정도였는데, 물품을 받은 사람이나

보낸 우리는 100배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며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라는 것이 아닐까?

룡천역 폭파 사고는 국가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기부금이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성금을 모아 방송국을 통해 전달되겠으나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는 언제 인도주의적인 감성을 가진 초당적인 대통령이 나올까? 이유를 불문하고 어느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일방적 분위기에 빠져 만신창이 되어 비통한 심정으로 기사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러하기에 신앙적 양심으로 산 개혁의 증인, 장 갈뱅(John Calvin, 1509-1564)의 정치적 삶을 NGO운동을 통해 그려 보는 것이다.

개혁운동가 갈뱅

갈뱅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설교가, 주석가, 신학자, 문필가, 법률가 정도로 말하고 있으나, 그의 개혁의 전 과정을 보면 교회와 사회의 정치가로서 제네바 시를 23년 동안 전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된다.

갈뱅은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1537년 1월 제네바 시의 소의회와 2백인 회의를 통해 교회의 정치기구를 채택한 후 「신앙요리문답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배우기로 서약하고 아이들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파들이 있어서 심지어 갈뱅을 아리우스파로 정죄하기도 하였다.

시정부와의 충돌은 교직자들이 성경만 전하지 왜 정치에 관여하는가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한 표현으로 과격파들은 습격을 한다던지 투석하고

협박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로 인해 결국 시의회는 가결에 의해 칼뱅과 파렐을 제네바로부터 추방을 시켜 버렸다.

개혁을 시도하다가 슈트라스부르크로 온 칼뱅은 부처(M. Bucer)의 도움을 받으며 프랑스 이만교회를 섬기면서 저술과 신학연구에 전념하였다. 1539년 「기독교강요」 제2판을 내고 「로마서주석」도 출판하였다.

제네바는 날로 부패하여 갔으며 반대파 세력의 약화로 인해 칼뱅이 다시 재초청되었다. 칼뱅은 이러한 재초청에 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파렐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1541년 9월 제네바에 들어가 1564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간 개혁운동가로서 일생을 마쳤다.

1541년부터 시작된 그의 개혁운동은 처음 13년간은 고전의 시기였다. 나중 9년은 승리의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3세기까지의 교부들의 글을 사랑하고 그것에 근거한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네바에서는 시민 전부가 교인이 되어 신앙고백에 동의하게 하였으며, 어린아이들은 문답서를 배우게 하였다. 이와 같이 시 전체가 교회가 된 것이다. 도시의 교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목사 5인과 장로 12인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규율과 시민의 도덕을 관리하였다. 평의회는 규율을 정하여 제네바 시민으로 하여금 음주와 무도, 사치, 외설, 저속한 노래 등을 금하였다. 칼뱅은 이 회의에서 성경해석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¹³⁾

NGO와 청지기직

칼뱅의 신학과 신앙운동에서 NGO와의 연관성을 찾게 되는 것은 기독교적 삶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청지기직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저술한

13. 김의환 감수, 「교회사」(서울: 세종문화사, 1976), 291쪽 이하.

「기독교강요」의 내용은 서론 부분이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정의 말씀으로서 기독교 변증서라는 점과, 그가 다룬 내용들은 거의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청지기직을 행할 것인가를 사도신경에 비추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를 각 권에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칼뱅의 신앙운동을 NGO와 연관시키는 것은, 중세 시대부터 종교개혁까지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에서 가톨릭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 조직이었으며, 종교개혁 이후 국가와 종교의 영역이 구분됨으로써 교회의 비정부적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병약자, 빈민자 구제 등의 사회복지사업이 주된 것이었다.¹⁴⁾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규정하면서, 이웃사랑의 실천은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의 불행을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길 때에 마치 자기에게 하듯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그의 신앙적인 가치관은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데 있다. 이 일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의 실천과 정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적인 삶이다. 그곳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마 7:12) 윤리관이라 할 수 있다. “오른 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삶”(마 5:39-42)을 말한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으로 예수의 “무엇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14. 주성수, 「NGO와 시민사회: 이론, 모델, 정책」(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4), 60쪽 이하.

15. 존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212쪽 이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Ἡκούσατε ὅτι ἐρρέθη, ἐνῶ δὲ λέγω ὑμῖν)를 든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격적인 신뢰의 신앙을 새롭게 주장하여 신뢰와 신앙은 이들에게서 동의어로 쓰였다. 루터의 「대요리문답」과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에 나오는 산 신앙(fide viva)은 이를 말해 준다. 믿음과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가톨릭신학을 개신교의 '산 믿음'은 좋은 행위를 스스로 가져온다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가톨릭의 구원=믿음(belief)+행위

개신교의 구원=산 믿음(living faith)

믿음은 지적인 의미를 갖는 신념(belief)과 행위에 가까운 신뢰(faith)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지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산 믿음'이란 행위를 포함하는 믿음이다. 이는 마치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도 같다. 율법 속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음 속에는 율법이 들어 있다. 복음은 새로운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톨릭신앙은 제사장적인 것이요 개신교 신앙은 예언자적이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통일적인 것과 다원적인 것, 구심적인 것과 원심적인 것, 미사주의와 설교주의, 사제주의와 예언자의 종교 등으로서 역사적 변천에 따라 기독교의 이중 구조를 갖게 하였다.¹⁶⁾

칼뱅은 '디도서 2장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행동들을 '신중함'과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구분하였다. 신중함은 순결함과 절제, 그리고 세상의 제물을 검소하게 사용하며 인내로 궁핍함을 끝까지 견디는 것까지 포함한다. 의로움은 각 사람을 합당한 대로 대하는 공평의 의무를 다 포괄하며, 경건함은 세상의 부패 상태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며,

16. 김성식, 「루터」(서울 : 삼오문화사, 1986), 40쪽.

또한 참된 기록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¹⁷⁾

NGO가 지양하는 바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재정적 자립의 달성과 나아가 시민사회의 건설인데, 당면한 현안 문제들로는 엘리트 중심의 대표성과 이로 인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 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데, 시민과 NGO의 참여가 정부와 정책을 지지해 주는 한도 내에서 정부정책과 사회개혁에 유용할 것이다.¹⁸⁾

칼뱅의 정치 사상과 이중적 통치

칼뱅의 정치 사상은 개신교가 일찍 뿌리를 내린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의 근대국가들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잘 알려진 견해이다. 그의 정치 사상은 「기독교강요」 제3권 19장과 제4권 20장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그의 정치 사상을 NGO와 연관을 지어 살펴보려 한다.

칼뱅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이중적 통치인 두 개의 정부가 있다(duplex in homine regimen). 영적인 정부와 시민정부이다. 영적인 통치와 국가의 통치라고도 번역이 된다. 전자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양심이 훈련을 받는 곳이며, 후자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는 인간성과 시민 됨의 의무를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다.”¹⁹⁾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영적 및 세속적인 통치권이라 부른다.

17. 존 칼빈, 상계서, 206쪽 이하. 칼뱅은 디도서 2 : 11~14를 주석하면서 성도의 삶의 각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18. 주성수, 상계서, 301쪽 이하. 주성수 교수는 제8장 “시민사회와 유토피아”에서 NGO의 활동을 통한 시민사회의 건설이 가능한가 아니면 유토피아로 머물 것인가를 물으면서, NGO활동의 쟁점들을 들고 있다. 중요한 변수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재정 자립의 달성, 그리고 자율적 시민사회 건설이다.

19. 참조 : 존 칼빈, 편집부 역, 「영한 기독교강요」, 제3권(서울 : 성문출판사, 1993), 628쪽 이하.

영적인 통치와 국가의 통치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전자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속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였고, 영원토록 썩지 않을 미래의 복락을 예고하고 있으며, 후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의 도리와 교회의 지위를 변호하고, 사회에 적응시키며,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²⁰⁾

갈뱅이 양심(conscience)을 영적 정부에서 인간의 표준으로 삼은 것은 양심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이며, 바울이나 베드로도 양심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주장한다(양심의 증거, 롬 2:15-16, 선한 양심, 벰전 3:21). 그는 디모데전서 1:5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예로 들면서 양심이란 지성(intellect)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갈뱅에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살아 있는 성향이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기를 바라는 순전한 열심이기에 양심의 자유를 말한다. 우상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심의 자유가 있기에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 정욕을 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음란과 더러운 말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세우는 것은 물론 양심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²¹⁾

의미상으로 볼 때 영적인 통치는 영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요 세속적 통치는 현실생활에 관한 것인데, 먹고 입는 것뿐 아니라 거룩하고, 고결하고, 절제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관한 통치를 인간의 양심이 대변한다는 것이다.

두 세계에는 각기 다른 왕과 법률이 권위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 둘이 철저히 구별되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

20. 존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제4권(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585쪽.

21. 존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제3권, 414쪽 이하.

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인 인간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자유스럽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개의 정부 이론은 사상적으로 세네카(seneca)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의 공화국은 법과 정치적인 시민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존재들로 구성된 사회로서 도덕적, 종교적 사회라고 보았다. 갈뱅은 이 두 개의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왕의 왕인 하나님께 속한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두 개의 정부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²²⁾

갈뱅이 배격하는 시민정부 형태에 관한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은 재세례파와 마키아벨리적 입장이다. 전자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자신들의 양심을 속박하는 어떠한 법적인 제도나 규정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전복하려 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갖던 그룹이었으며, 후자는 제후들에게 아첨하며 절대 권력을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대립시키려는 것을 말한다.²³⁾ 갈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국가 사회와 공동체를 저해시키는 해악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며 서로 다른 사명이 있음을 말한다.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게 하며,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이 생명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축복을 예지하도록 한다. 국가 통치의 우선적인 직무는 정의의 실현이다(롬 13:1-4). 정부의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인도되어야 한다.²⁴⁾ 국가통치의 목적은 하나님께 향한 외적인 예배를 보호하며, 교회의 경건한 교리와 지위를 보호하며, 우리의 생활을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22.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241쪽.

23. 참조: 상게서,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을 보라.

24. H. 헨레미터,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 기본 사상」(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0), 125쪽 이하.

정의와 일치하도록 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여 전체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²⁵⁾

칼뱅에게서 남는 하나의 물음은 칼뱅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theocracy)를 했느냐라는 것이다. 이 말이 성직자 통치(hierocracy)나 성서적 통치(Bibliocracy)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칼뱅의 신정정치는 불가능했다. 그 이유로는 칼뱅이 제네바에서 관리와 성직자를 구분했으며, 그가 말한 것은 각 민족에게 그 민족에게 유익되는 법률을 만들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535년 독일 뮌스터를 장악하고 구약의 제도를 모방한 신정사회를 건설하려던 재세레파의 참사를 경험한 칼뱅은 구약의 사법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던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칼뱅의 통치는 그리스도 통치(Christocracy)이다.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육체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활동과 창조활동을 말한다. 칼뱅의 정치적 이상은 성직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설교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정치가를 길러 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성서의 사법적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에 속하는 지성과 양심에 의한 사회였다.

교회의 직임들과 봉사의 사역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께서 최고의 권위와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고, 그 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 권위는 오직 그 말씀으로 시행되고 운영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마 26 : 11) 자신의 사역의 대리자인 직임자를 교회에 세우셔서

25. 참조 : 존 칼빈, 편집부 역, 「영한 기독교강요」, 제4권 제20장 국가 통치(서울 : 성문출판사, 1993), 961쪽.

운영하신다.

칼뱅은 1541년 11월에 ‘교회에 관한 칙령’(Ecclesiastical Ordinances)을 목회적 기능의 견지에서 작성하여 법으로 통과하였다. 교회는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의 4가지 직분을 가진다.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며, 고통당하는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²⁶⁾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도우미나 도구, 예를 들면 천사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연약한 질그릇 속에 감추어 두신 것과 같다(고후 4 : 7).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사랑의 끈으로 사랑을 증진시킨다면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이것을 끈으로 삼아 구원과 영생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위탁하셔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도록 했다고 한다.²⁷⁾

칼뱅은 에베소서 4 : 11과 로마서 12 : 7~8을 근거로 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음을 말한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이다. 이 가운데 끝의 둘만이 교회 내의 정상적인 직분이고 처음 셋은 필요에 따라 부활시키신 특별직이다.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자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온 세계에 다니면

26. T. H. L. 파커,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172쪽 이하.

27. 참조 : 상계서, 「기독교강요」, 제4권, 60쪽. 제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 그들의 선출과 직분, 제1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

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은사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거의 없다. 복음전하는 자는 전도자로서, 사도들보다는 직분이 낮으나 그들 다음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누가, 디모데, 디도 등과 같은 전도자로서 70인의 제자들도 전도인들이었다(눅 10 : 1).

목사와 교사는 이들이 없이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 교사들은 성경해석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그 이외에 제자훈련이나 성례집행, 경교와 권면을 하는 일은 목사가 전담하였다. 전도자와 사도를 함께 보면 서로 상응하는 두 쌍을 보게 된다. 교사들은 선지자에, 그리고 목사는 사도에 해당한다.

선지자의 직분은 그 탁월한 계시의 은사 때문에 두드러졌으며 교사의 직분도 성격이나 목적에 있어서 비슷하다. 사도들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사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였다. 목사들은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교회에 직제를 두셨다. 이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려 하신다. 이는 마치 노동자가 연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도움이 없이 친히 일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시켜서 일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인간의 사역은 신자들을 묶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힘줄과 같다고 한다. 인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힘이 된다. 교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1. 사도들과 목사들

목사의 주된 기능은 복음을 전하며 권징(치리)과 성례를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목사는 초대교회의 계승자이다. 감독이나 장로의 칭호를 갖기도 하였

다. 주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라고 하셨다(마 28 : 19). 바울은 목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고전 4 : 1)라고 한다. 감독에 대하여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리는 자를 책망한다”(딤후 1 : 9)라고 하고 있다. 목사의 직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위해 목사가 세워지며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부름을 받는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질도 있어야 하며, 권징의 실시에도 관여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의 본질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권징의 실행을 돕는 것이다. 목사는 의회로부터 성직 취임 면허증(certificates)을 받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것이며, 교회에 관한 직령을 지키고 충성할 것과 정부와 시의 명예를 드높일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제네바의 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것이다.²⁸⁾

갈뱅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이해하였는데,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 사함의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서 피차에 도움을 주는 신앙공동체이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택에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말하려 하고 있다.

교회란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경건한 공동체라고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에 있다. 말씀과 성례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회의 특색을 나타내 보이는 표지이다. 이러한 표지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²⁹⁾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28. 파커, 상계서, 173쪽 이하.

29. 로널드 S. 웰레스, 박성민 역, 「칼빈의 개혁사상」(서울 : 기독교문서회, 1995),

의 집행에 의해 구분된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제가 중요하다.³⁰⁾ 이를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의 대리직이 사도들과 목사들이다.

목사의 직은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독특한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에 필적하는 직분으로 교회에 부여하신 것이다. 목사가 신자들을 가르치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교리를 받아들일 때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신자들이 연합하여 서로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교 사

교사의 임무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몰아내는 것이다. 구약을 주해하고 신학을 주해하는 2명의 교사가 있어야 했다. 신학의 보조 학문인 언어학과 인문학을 가르치기 위한 남학교와 별도의 여학교에 교사와 보조 교사가 임명되어야 했다.

3. 장로와 감독

가르치며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장로(πρεσβύτεριον)는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칼뱅은 디도서 1:5, 1:7, 사도행전 20:17, 20:28을 근거로 하여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책임을 주장한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고전 12:2), 각 도시에서 장로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감독이라 불렀다. 이는 계급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막기 위함이었다.³¹⁾

185쪽.

30. 해롤드 나이트, 「칼빈의 신학사상」(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7), 221쪽 이하.

장로들은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행하는 일들을 맡았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롬 12:8)을 말한다. 처음부터 각 교회에는 경건하고, 위엄 있고, 성결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직분은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

감독과 장로들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에 전력을 다했다. 장로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은 아리우스의 논쟁이 있는 후 알렉산드리아에서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독의 일차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오래 지속된 원칙이다.

4. 집 사

선출에 의해 임명되는 집사들은 우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이 맡겨졌다. 구제하는 일과 궁핍을 베푸는 일을 했다(롬 12:8). 이를 볼 때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딤후 5:9-10). 교회의 구제 사업을 관리(administrative)하고 조직하며 봉사하는 집사들과, 직접 환자와 빈민을 돌보는 실행(executive)집사들이다. 전자는 관리인(guardians), 즉 소위 구호 감독관의 역할을 하였으며, 후자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원에 환자들을 위문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집사라는 말에서 나온 기독교사회봉사(διακονία)는 더 넓은 뜻을 가지지만 성경에서 집사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은 구제 물자를 분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교회로부터 맡은 사람들이다.

누가가 이들의 기원과 임명, 그리고 직분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기록하였다(행 6:3).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31. 존 칼빈, 「기독교강요」, 제4권, 제3장, 125쪽. 감독의 지위 참조.

듣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 정직한 사람 일곱 명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라고 신자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깔뱅은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사도들의 교회에 있었고, 우리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깔뱅이 일하던 제네바는 두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와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들이었다.³²⁾

깔뱅주의는 폐쇄적인 이론이나 체계가 아니라, 깔뱅 자신이 제네바에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시도했던 것처럼, 항구적으로 보다 나은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개혁되어진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것이 깔뱅신학 전통의 입장이다. 깔뱅은 교회뿐 아니라 세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좋게 변화되기를 원했다. 사회윤리로서 깔뱅의 윤리는 개인의 도덕에 근거하여 인간적이며 세계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교회뿐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 전체가 변화되어 보다 나은 세계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³³⁾

호남선교의 NGO의 성격

호남선교의 안방 전도는 깔뱅의 후예라 할 수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인 한일여자성경학교를 통해서이다. 먼저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을 몇 단계로 살펴보자. 1922년부터 1960년까지 전주와 광주에서 초급 성경학교와 고등성경학교로 나누어서, 여전도사(Bible Women) 양성을 목적으로 기초적인 성경공부와 몇 과목의 일반 과목을 가르쳤다.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과 과정이었다. 또한 광주 이일에서는 학령을 초과한 미혼과 기혼

의 문맹 여성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과정의 일반학교 과정도 있었다.

1961년부터 1973년 문교부의 각종 대학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초급성경학교 과정은 탈피하였다. 이때는 중·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을 별과와 본과로 나누어서 신입생으로 받았다. 이 기간은 학생들이 나이 많은 여성들에서 서서히 젊은 여성들로 바뀌는 시기였으며, 교과 과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나 고등학교 과정의 신학수업이었다.

1974년에서 1981년 남녀공학 전까지는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사실상 신학대학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1980년 문교부로부터 3년제의 학제를 4년제로 연장 실시하도록 학칙 개정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대학 과정인 4년 과정을 실시할 수 없었다. 1982년 3월 1일, '전주한일여자신학교'는 '전주한일신학교'로 개명되고, 남녀공학으로 출발하였다. 1997년부터 신대원을 설립하여 약 250여 명의 졸업생을 냈으며 전국에서 동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시 최근에 개명된 한일장신대학교가 호남지방의 오지에서는 기선을 잡아 가고 있다.

교회가 NGO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학력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저임금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과 인권, 교육과 구호 등의 NGO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매우 낮은 수준의 임시직 저임금인 50~6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장신대학교를 포함한 우리 교단의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목회사역을 위해 농어촌에 갔을 때 교인들이 10여 명에 머문다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만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고, 지역사회를 이끄는 면에서는 NGO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여자신학교에서의 NGO와 관련된 사회 봉사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두 여성을 '한일'의 공동체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전 생애를 이 학교를 위해 바쳤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은 이 학교의 발자취마다 배어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그 사랑

32. 상계서, 111쪽, 각주 참조.

33. 깔뱅은 제네바에서 1541년부터 1564년까지 23년간 하렐(Farel)과 함께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참조: 정성국, 「칼빈주의 사상과 삶」(서울: 한국성서협회, 1979), 45쪽 이하.

하는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 : 27). ‘한일의 어머니!’ 국적을 초월하여 불붙는 자매애(sisterhood)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땅의 여성들을 그리스도의 교훈과 지도대로 인도하며, 사랑하며, 이 학교를 지키고 이끌어 왔던 위대한 생애이다. 그들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였으며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쉐핑(Miss Elizabeth J. Shepping, 1880-1934 : 서서핑)과 코라 웨일랜드(Dr. Cora Wayland, 1920- : 고인애)이다.

1922년 6월 2일, 광주에서 활약하던 여선교사 서서핑에 의해 그의 집에서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의 양성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필요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으로 나이 많은 처녀들과 젊은 부인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에게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주일학교의 교수법, 여전도회 운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일반 교육의 기초적 바탕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학교는 1924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후에 이일성경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예정성경학교와 같이 초급성경학교로 출발하였다.

자활부서를 두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이 산업부에서는 양잠과 직조, 봉제, 뜨개질 등을 하여 물건들을 생산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밭에서 빵을 따고, 누에고치를 치고, 그 명주실로 배를 짰다. 그 생산품을 미국 버지니아 주의 밴스의 도움을 받아 수출하였다. 그 수입으로 학생들은 학비의 도움을 받았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여성들을 가르치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았다.

1922년에서 1891년까지의 한일여자신학교는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외부의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설 속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살아 있는 기독교의 역사로서 남아 있게 되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선교방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가 부활하셔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친히 말씀하셨던 평화를 만드는 일, 파괴된 이 땅의 평화, 그 깨진 평화를 가르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일장신대학교는 사랑을 토대로 한 윤리적인 기초에서 가르치고, 이웃과 이웃 사이,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배려의 윤리’로 봉사하는 희생정신으로 한일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그 길은 일찍이 서서핑이나 고인애, 그리고 그들의 자매애로 수많은 전도부인들이 이 학교를 통하여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걸어갔던 길, 그 좁은 길, 결코 매물시킬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영원한 한일의 이야기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광주를 찾을 때마다 호남신학대학의 앞동산에 있는 28분의 선교사들의 묘소를 찾으며 그들의 노고를 기린다. 특히 한일의 어머니 서서핑 선교사의 묘지에 가서 그의 묘비를 어루만져 주며, 잡초를 뽑는 등 감사의 표시와 헌화를 하고 온다. 한일은 이 정신을 길이길이 이어 받아 강가의 나무처럼 영원하리라.

결 언

칼뱅의 신학과 신앙운동을 NGO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칼뱅을 웨슬리의 대사회적인 신앙개혁 차원에서 재조명한다면, 칼뱅에게서 오늘의 NGO 단체들이 하는 일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칼뱅이 극도로 타락한 제네바를 23년간이나 반대파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파렐과 함께 소의회를 조직하고, 200인 공의회를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개혁했으며, 웨슬리 역시 극도로 타락한 영국사회를 개인과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육 기관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³⁴⁾ 대사회적인 일들에 적극 참여했

34. 배경식, 「정전과 신앙」(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259쪽 이하.

다는 점이다.

NGO의 일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참여와 자치 권력,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말을 대표할 때는 NGO를 사용했으며, 비영리 조직 일 때는 NPO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VO를,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이라는 면에서는 CSO를 사용한다. 앞의 두 개의 이름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나, 나머지 두 개의 이름은 긍정적이면서도 넓은 개념이 들어 있다.

우리 나라의 NGO는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된 기독교 사회문화 단체들인 YMCA나 YWCA로부터 시작하여 적십자사 등이 있다. 6·25 이후에는 사회봉사 단체인 홀트 양자회, 선명회 정도 있었다. 과거의 군사정권 하에서는 시민운동이 반정부 운동으로 매우 미미하게 시작되었는데, 당시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독교와 관련을 갖는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개신교의 NCC나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제단들이었다. 그 이후에 환경과 봉사 단체들이 생겨나다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연대를 갖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은 로타리, 라이온스, 국경 없는 의사회, 앰네스티, 해비타트, 그린피스 등이다.

지난 FIFA 세계축구대회를 전후로 하여 4강 신화를 이루어 낸 붉은 악마는 스포츠 부문의 NGO이며, 노사모는 정치분야의 NGO, 그리고 전교조는 교육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교사들의 연대조직이다.

칼뱅에게서 NGO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개혁적인 성향 때문이다. 파렐의 초청과 권유에 의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할 때 그를 억압하는 정치 세력의 반발은 매우 거세었을 것이다. 개혁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쫓겨나 슈트라스부르크로 피신을 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혁의 기회가 주어져 23년 동안 제네바 시를 개혁적 성향을 갖는 도시로 바꾸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서 보여지는 두 개의 정부는 영적인 정부와 시민정부이다. 전자는

양심이, 후자는 법률이 각기 그 정부를 지배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칼뱅이 배격하는 다른 시민정부로서는 재세레파와 마키아벨리적인 입장이다. 전자는 신앙양심을 절대시하고 앞세우면서 어떠한 법적인 제도나 규정을 무시하며, 후자는 제후들에게 아부하면서까지 절대 권력을 만들어 내는 태도이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535년 재세레파의 윈스터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그리스도 통치(Christocracy)라고 대답할 수 있다.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그리고 육체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창조사역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런 면에서 제네바 시를 개혁할 때 설교와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훌륭한 정치가를 길러 내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지성과 양심에 의한 사회였다.

교회의 직임과 봉사의 사역들로는 에베소서 4:11과 로마서 12:7~8을 근거로 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이다. 이 가운데 끝의 둘만이 교회 내의 정상적인 직분이고 처음 셋은 필요에 따라 부활시키신 특별직들이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예배와 교육의 장이다. 그 이외에 제자훈련이나 성례집행,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은 목사가 전담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교회에 직제를 두셨다. 이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연약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의 띠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진 특권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복음전파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도움이 없이 친히 일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시켜서 일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도와 목사들은 복음전파와 성례전의 거행, 그리고 장로와 감독은 가르치며 다스리시는 일을 한다.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공휼을 베푸는 일을 했다. 집사라는 말은 사회봉사자라는 더 넓은 뜻을 갖는데, 오늘의 말로 구제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한다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교회가 갖는 가능성과 다양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 내에 상주하는 사회봉사 부서(Soziale Station)를 두어 그곳을 통해 노인들의 관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접하게 된다. 다원화되어지는 사회에서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유럽 교회와 같은 NGO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표식은 450년 전 제네바를 개혁한 칼뱅에게서 찾을 수 있다.

칼뱅의 사상이 신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과학, 예술 등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를 가리킨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 : 36)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생활의 원리로 삼아 실현하려 한 것이다.³⁵⁾ 이는 칼뱅의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35. 헨리 미터, 「칼빈주의」(서울 :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1), 14쪽 이하.